

# 타워크레인 후크 주먹가 추락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아찔'

### 서정 라페온빌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서 500Kg 무게 못건더

평택시 이충동 459-2번지 서정 라페온빌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고공 타워크레인 와이어 교체작업 중 500Kg 무게의 후크가 인근 상가 주택으로 떨어져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인천과 용인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나 각 공사현장 주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목적자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서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25~30m 높이의 타워크레인 후크가 공사장 옆 식당의 가건물을 덮쳤다고 밝혔다.

당시 식당에는 2명의 조리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행히 조리원들이 타워크레인 후크가 추락한 시각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상황이었다.

특히 공사현장 100여m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아이들의 통행이 빈번하며 전통

시장도 열리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타워크레인 후크 추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불감증에 의한 타워 크레인 사고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자 지난 10월 청와대 까지 나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타워크레인 안전성 검사 강화, 노후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등록 및 부실검사 처벌규정 신설, 원청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도 지난 11월 크레인 안전검사 등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현장관계자에 따르면 "와이어 교체 작업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타워크레인 후크 추락 사고였다"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크레인 사고에 범위한 사항은 없었다"며 "공사현장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과태료와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 홀소리 닥소리

### 배배꼬인 평택, 안성, 용인 상수원보호구역

○...38년 동안 계속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평택, 안성, 용인시의 지자체와 시민 갈등, 좀처럼 해소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한없이 배배꼬이기만 하는데...해결책 위한 회의도 많고, 대책안도 많으나 꼬인 매듭은 좀처럼 풀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 김치요~연탄이요~이때가 기회요~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웃돕기 단체들. 밀린 숙제하듯 바쁜 일정 쪼갠다며 이것저것 해 나르기 여념 없는데, 받는 이들 또한 지금이 기회라며 눈치 보기 바쁘고...도대체, 왜 연말이면 이웃돕기 일손들이 이리도 바빠지는지...

### 우왕좌왕, 갈팡질팡

○...올해, 인터넷 최고의 사자성어 키워드는 '우왕좌왕'. 희망차게 시작했던 한해지만 롤러코스트처럼 굴곡 많은 올 한해에 적절한 표현인 듯. 부디, 다가올 2018년은 평안이 깃든 한해가 되길.

###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7' 번, 국군 기무부대로!  
www.dsc.mil.kr (간첩선/간첩신고 최고 20억원, 테러관련 신고 최고 1억원, 군관련 제보 최고 5천만원)

##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포항 지진피해 성금 1천만원 '쾌척'



지난 12월 4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경북 포항시를 방문해 지진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규모 5.4의 강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포항지역 이재민들을 돕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달한 이번 성금은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더욱 뜻 깊다.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매년 말,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사랑의 쌀 나눔 행사'와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들을 돕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진피해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굿모닝 2층버스, 경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길인데 막막하고 좌석은 부족한 출근길? 경기도가 먼저 바꾸겠습니다. 넓게 트인 2층 시야와 70여석의 여유있는 좌석, 전좌석 휴대용 충전서비스와 독서등, 하차벨까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출근길. 경기도의 굿모닝 2층버스가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꿉니다.

**Good Morning 2층버스**

- 70여석
- 휴대용 충전
- 좌석 독서등
- 좌석 하차벨

■ 현재 운행 노선  
\*운행시간 05:11~13:00

- 8007 (가평-강일) • 1000-2 (삼양-강일) • 8012 (삼양-강일) • 1670 (삼양-강일)
- 1001 (삼양-강일) • G6000 (김포-서안) • 8601 (김포-서안) • 3000A (김포-서안)
- 0600 (김포-서안) • 1004 (김포-서안) • G2100 (수원-강일) • 7770 (수원-서안)
- G7111 (여주-서안) • 3102 (연천-강일) • 300 (연천-대곡, 구암)